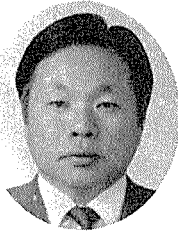


RI, 迅速 通関의 重要性



새한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哲鍾

당사가 放射性 同位元素 업무를 다루기 시작한지 어언 19년이 넘어 내년으로 20년이 된다.

초창기에는 여러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放射性 同位元素를 수입하여 통관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放射性 同位元素 자체가 위험물질인데다 半減期에 따른 有效期間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얼마나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신속한 통관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잠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처음 放射性 同位元素를 수입할 당시만 해도 放射性 同位元素라는 개념조차 세관이나 政府專門機關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放射性 同位元素 물품이 도착후 다른 수입물품처럼 통관규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放射線 線量이 때때로 문제가 되어 통관이 지연되곤 했다. 방사선 선량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측정기로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통관이 지연되어 제때에 병원에 공급을 못하고 응급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와 했던 점에는 의사나 환자의 보호자 못지 않게 우리 자신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 왔었다.

이러하던 때에 당시 정부 某處의 장관이 서울대

학병원에서 放射性 同位元素를 이용한 癌검사의 필요성을 진단받고 당사에 납품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밟게 되자 당사로서는 규정에 묶여서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세관과 관세청의 협조로 先通関 後書類補完이라는 특별조치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어서 진단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후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放射性 同位元素가 신속한 통관대상 품목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되어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Cyclotron제품인 각종 癌검사에 가장 확실한 핵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Ga-67이나, 心筋梗塞症 진단에 꼭 필요한 Tl-201 등 같은 半減期 3일 정도 品目の 수입은 상당한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輸入線에 注文時 우리는 통관 일수까지 심안하여 실제로 필요한 량의 두배 이상을 주문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환자 부담이 늘게 되었고 또 다른 문제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였다.

이러한 점들이 통관상의 검사생략으로 통관의 간편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보다 싼

값으로 공급받아 필요한 환자에 적기에 이용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에서도 늦게나마 한 발 앞선 선진 핵의학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관 절차의 간편화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실시해 오던 통관검사생략이 최근 들어 隨時檢査로 바뀌게 되자 자연히 그에 따른 통관 지연 현상이 발생되어 신속배달에 저장을 초래케 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관의 절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마음 간절하다.

첫째, 방사성 동위원소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半減期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모든 핵의학검사의 기초가 되는 Technetium-99m Generator를 수입한다면, 검사기준일 첫째날 500mCi가 抽出되고 둘째날은 400mCi 이하로 抽出量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루 20% 이하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Ga-67이나 Tl-201도 비슷한 수준인 20% 이하로 감소됨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관의 지연이란, 곧 귀중한 의학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방사성 동위원소는 말 그대로 방사성 물질이다. 이 물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노출됨을 피해야 하고, 또한 다른 물질로부터도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젠 상식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관세창고에서의 조속한 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쓰인다. 보통 병원에서 癌 진단용으로 사용되

는 동위원소는 신속한 검사가 필요시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그에 의해서 의사의 확고한 진단을 유도하여 환자의 빠른 쾌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관계당국에서 더 개선책을 보완하여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통관조치할 수 있도록, '선 통관 후서류보완'과 같은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체적인 예로 오후 늦게 도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 하더라도 세관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臨時開庁을 이용, 그날 저녁 늦게라도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점이 해결된다면 외국에서 甲状腺檢査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시로 문의를 해오고 있는 품목인 I-123 (반감기 13시간) 과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核種들도 수입 가능해져 우리 국민들도 이런 첨단 의학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도 Cyclotron이 도입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핵종들이 공급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외국에서 속속 개발되는 새로운 核種을 빠른 통관절차로 조속한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의학계, 나아가서는 생물공학계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끝으로 앞으로는 첨단과학의 계속적인 발달로 방사성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각종 新技術·新產品의 개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당국의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조그맣게는 한 생명의 구제로, 크게는 밝은 사회 형성의 지주가 될 것이라 믿는다.

